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건축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론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도건축사협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협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협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상, 기생충, 그리고 건축을 바라보다

Looking at Academy Awards, Film ‘Parasite’, and Architecture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칸느 영화제나 베를린 영화제,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상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건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선진국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우리 수준이 세계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70년대에 조풍연 선생의 ‘영화이야기’를 읽고, 흑백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주말의 영화로 동경하던 아카데미 수상작, 칸느 영화제 작품상 등을 보았는데…….

최근 마음 깊숙이 있었던 한계치에 대한 막연한 장막을 걷는 뉴스가 들렸다. 몇 해 전 BTS가 미국 전국 네트워크 아침 방송 등에 나오고, 빌보드와 그래미에서 언급될 때 느꼈던 놀라움이였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의 백미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 정도면 영화 자체로 인정받은 것이다. 영화의 핵심이 아닌가?

전체주의 국가들이 자랑하듯 만들어내는 영화가 아니다. 영화 제목도 ‘기생충’이다. 우리나라 기사에 웃기는 댓글 중 사기꾼이 부자털이 하는 빨갱이 영화라는 비아냥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가 자본주의 최정상 국가의 가장 자본주의적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다. 왜 댓글을 언

급하냐고? 이 웃기는 댓글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감독의 은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급한 예술은 (이 표현도 조금 거시기 하지만) 직설적이다. 마치 욕설로 감정을 드러내듯 직설적이다. 이런 직설적 감정을 다각도로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은유와 비유로 설명할 때 수준 있는 예술이라고 한다. 유머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여러 배경에는 시대 정신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소금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영화는 이미지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매체로, 충분히 그 자체의 힘으로 세련되고 매끄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유쾌하게 만들었다.

스마트폰의 뉴스 알림으로 뜬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에 영화광인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

다음은 “건축이 돼야지!”

회사 직원들이 웃었다.

이미 오래 전 클래식 음악에서, 미술에서, 대중음악에서, 우리 문학에서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은 작가와 작품들이 뉴스를 채웠다. 특히나 경제나 스포츠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정서와 인식, 그리고 지성으로 인정하는 분야가 예술이다. 이런 분야들에서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공감을 바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건축은?”이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기대감에서 “건축이!”라는 외마디가 나온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건축이 창의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감을 얻어내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대와 공감하는 우리 건축의 정체성을 바탕으로?